

2022 사순절 시리즈 <천로역정 함께 읽기> 3강

“마침내 무거운 짐을 벗고 가다”

- 마태복음 11:25-30 -

1. 구원(salvation)의 언덕에서 생긴 일

그는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 마침내 한 언덕 받이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(Cross)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. 크리스천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에서 그 속으로 굴러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.



첫 번째 천사는 “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”.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서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으며,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 주고는 떠나가 버렸다.

1) 죄사함

(시 103:12)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

2)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전가

(롬 3:21-22)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

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

3)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심

천국에 이를 때까지 간직해야 할 말씀.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게 된다.

(히 3:14)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

2. 잠자는 세 사람: 어리석음(Foolish), 나태(Sloth), 뻔뻔함(Presumption)

그는 언덕 아래에서 사슬에 발이 묶인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.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 그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지쳐 잠든 게 틀림없다고 크리스천은 생각했습니다. “일어나세요!” ...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찢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? 괜찮다면 쇠사슬과 족쇄를 벗어버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 여러분을 보면 당장 달려들어 그 무서운 이빨로 물어뜯고 말겁니다



- 어리석음: “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이 난리입니까?”
- 나태: “조금만 더 잤으면 딱 좋았는데!”
- 뻔뻔함: “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갈 길이 다른 거요. 괜히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덕의 앞가림이나 잘 하쇼.”

(벧전 5:8)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

(골 4:2)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

3. 헛된 영광(Vain-Glory)의 도시 출신: 품생품사(Formalist), 위선(Hypocrisy)



우린 헛된 영광이란 도시 출신인데 시온산으로 가는 길 이요. 거기에서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...어떻게 왔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호들갑이시 오? 어쨌든 들어왔잖소. 댁은 좁은 물을 지나서 여기까 지 왔고 우린 담을 넘어서 왔지만 이렇게 같은 길을 가 고 있소. 그쪽이 선택한 방식이 우리가 고른 방법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소?... 깎아지른 듯 가파르 고 높은 고갯길과 평평한 길들을 보고는 덩석 쉬워 보 이는 쪽을 선택했다. 양쪽 길이 둔덕 기슭을 크게 담아 돌아서 크리스천이 선택한 곧은길과 곧 만날 거라고 생 각했다. 한쪽의 이름은 위험(Danger)이었고 반대편 도 로는 파멸(Destruction)이었다.

4. 왔던 길을 돌이키는 두 사람: 소심(Timorous)와 불신(Mistrust)

자기들 역시 시온 성으로 가려고 고통의 언덕(The Hill Difficulty)을 기어 올라 왔 노라 했다. (소심)“하지만 가면 갈수록 위 험한 일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 돌이킬 수밖에요.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. “그럼요 그렇고 말고 요.” 불신이 거들었다. “저 앞 길목에는 사 지가 두 마리씩이나 딱 버티고 있다니까요. 자는지 깨어 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. 하 지만 가까이 다가갔더라면 녀석들의 손아귀 에 잡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거 예요. 불 보듯 뻔한 일이지요.”



5.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함



크리스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...건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다. 뷰티풀(House Beautiful)이라는 대궐같이 큰 집이었는데 큰길 바로 옆에 서 있었다...다가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사자 두 마리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. 크리스천은 생각했다. ‘불신과 소심을 돌아서게 만든 위험 길목이 바로 여기로구나!’ 사자들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크리스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... 그 때 주의깊은 (Watchful)이란 이름을 가진 문지기가 크리스천에게 소리쳤다. ‘허약하기 짝이 없는 양반 같으니!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. 사슬로 단단히 묶어 두었으니.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부류를 가려내려고 저기다 매어뒀을 뿐. 길 한 복판에서 벗어나지만 앞으면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한다오.

(고전 10:13)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